

산도 바다도 철따라 바뀌는 남도의 숨은 매력

열 두 달 남도 여행

정지호 지음

여수는 남해안을 대표하는 항구도시다. 다도해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접하고 있다. '여수밤바다'라는 노래처럼 낭만과 운치가 사시사철 흐른다. 2월 초순을 지나면 남도 곳곳에서 봄꽃 소식이 들려온다. 성급한 봄꽃 가운데 하나가 동백꽃. 여수 오동도에 봄소식을 전하는 꽃이 바로 동백꽃이다. 겨울의 끝자락과 이른 초봄 사이에 오동도를 찾는 이들은 동백꽃을 보기 위해 간다. 마치 "고운 꽃다홍 치마를 입은 새색시 처럼" 자태가 곱다.



병풍처럼 솟은 무등산 서석대는 수려하면서도 기품을 자랑한다.

정지호는 방송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행작가이자 TV 방송작가다. KBS TV '남도캠핑원정대 '별뿔별'', '6시 내고향', '전국은 지금'을 비롯해 다수 프로그램에 작가로 참여했으며 광주MBC '투데이광주'의 '남도 캠핑' 패널로 활동했다.

정 작가는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항상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나 선뜻 답을 하기 힘들다. 추천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봐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 작가가 펴낸 '열 두 달 남도 여행'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남도를 담았다. 저자가 일 년 동안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보고 느꼈던 남도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아름다운 바다, 온후한 산, 유서 깊은 마을까지 아우르고 있어 '남도 여행 추천서'로 손색이 없다.

새롭게 시작하는 1월은 무등산을 추천한다. 겨울철 산행이다 보니 시간을 넉넉히 잡고 단단히 준비하는 건 필수. 병풍처럼 솟은 서석대는 수려하면서도 기품이 있다. 새해 첫날에 만난 무등산에 대해 저자는 "새벽 한철

을 뚫고 오를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렇게 새로운 일 년을 살아갈 힘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2월은 신비의 약수가 기다리는 광양 백운산과 꽃피는 동백섬 오동도가 제격이다. 고로쇠 약수는 음력 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채취가 이루어진다. 시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특별한데다 뼈가 아픈데 일정한 효험을 볼 수 있다.

3월에는 '봄 처녀 제 오시네, 셋노랑 옷을 입으셨네'가 맞춘 구례 산수유마을을 찾을 것을 권한다. 진달래 꽃이 만발한 여수 영취산도 빼놓을 수 없다.

4월 왕인문화축제가 열리는 영암에 가면 새하얀 양벚꽃 백리 길이 선사하는 운치에 빠져들 수 있다. 계절의 여왕 5월엔 장미축제가 열리는 곡성과 노랑꽃장포 피는 장성 황룡강을 방문할 권한다.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는 합평 나비마을로 캠핑 여행을 나서도 좋다.

6월에는 영광 범성포로 단오 여행을 떠나고 7월에는 백일홍 피는 담양 명옥헌원림을 찾아 연못에 비친 배롱나무의 신비한 매력을 감상해도 된다.

가을에 접어들 9월에는 완도 77면 국도 여행을 떠나 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서해안을 따라 영광과 온도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일반 국도로 그 가운데 완도 해변 구간은 최고 명품길이다. 핑크빛 가을이 물드는 10월은 합평 주포마을에 들러 민박을 해도 좋다.

11월과 12월은 각각 '오메 단풍 들었네' 장성 백양사와 겨울 석화가 피는 곳 장흥 남포마을을 추천한다.

영화 평론가 오동진은 추천사에서 "이 책에는 남도 출신이 아니라면 쉽게 알지 못하는 비밀의 코스가 잔뜩 담겨져 있다. 그것이야말로 이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진짜 이유이다"고 평한다. <라이프타임>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급진의 20대=현대의 20대 문제를 포플리즘의 틀에서 바라본다. 문화연구자 김내훈은 민주화 세력이 일지리,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부모보다 가난할 세대'가 출현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타노스나 조커 같은 영화 캐릭터를 빌려 자신의 반사회적 연행을 합리화하기도 하는 20대의 과격함을 급진성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서해문집>1만6000원

▲엄마랑은 왜 말이 안 통할까=10대 청소년의 입장에서 말이 안 통하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짚어준다. 영국 카디프대 정신의학 및 임상신경과학연구소 연구원인 저자 딘 버넷은 뇌의 변화와 차이를 중심으로 10대와 부모의 갈등을 감정, 학업, 휴대폰 사용, 고정관념 등으로 나눠 설명한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아는 것이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한다. <뜨인돌>1만3000원

▲오늘밤은 잠을 수 없어=영화 '화차'의 원작 소설 작가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작가 미야베 미유키의 90년대 초기작이다. 평범한 중학교 1학년 축구부원 오가타 마사오의 어머니가 어느 날 5억 엔이라는 거금을 유증받게 되며 시작한다. 작가의 고향인 후카가와를 배경으로 성격이 상반된 남중생 콤비의 활약을 그린다. <문학동네>1만5000원



▲나는 장사의 신이다='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저자 은현장의 노하우를 담은 책. 저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로 중급직과 피자가게, 칼국수집 등 배달일부터 시작해 전국 200개 매장의 '후라이드참정하는집' 치킨 프랜차이즈를 창업했다. 책은 창업 준비부터 가게 운영, 대박 가게를 만드는 비결까지 저자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있다. <떠오름>1만6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마말루비=김지연 작가의 별을 돌보는 존재에 대한 동화. 날마다 밤하늘의 별들을 깨워 반짝이도록 돌보던 마말루비는 어느 날 자기 일에 회의감이 들어 지구 별에 방문하고, 그곳에서 마말루비는 자신이 가진 별을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좌절한다. 저자는 마말루비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와 권태를 느끼는 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넨다. <이야기꽃>1만4000원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거예요=세계 여성 날, 보건의 날, 평화의 날 등 UN 기념일을 물고코 어린이가 세계 시민으로 사는 법에 대해 쓴 책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사는 열두 살 벨라티 위즈과 열 살

이사벨 위즈, 두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공유희 작가는 어린이들이 세계 시민으로 자라는 데 감잡이가 되어 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창비교육=1만2000원
▲시를 읽는다=고(故) 박완서 작가의 11주기를 앞두고 그가 생전에 남긴 작품 속 문장들과 이성표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이 어우러져 나온 시그림책이다. 책은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속 글 한 편에서 발췌한 '심심하고 심심해서 / 왜 사는지 모르겠을 때도 / 시의 가시에 찔려 / 정신이 번쩍 나고 싶을 때 시를 읽는다' 등의 구절을 그림책으로 꾸몄다. <작가정신>1만3000원

뉴욕 연작 4편... 낮선 곳에서 타인 통해 되돌아 본 '나'

장미의 이름은 장미

은희경 지음

은희경의 소설을 읽을 때면 약간의 서늘함을 느낀다. 이런 저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등장인물들이 낯설지 않아서다. 마치 나의, 내 곁의 누군가의 생각을 적어놓은 듯해 움찔해지기도 한다.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한 오랜 친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단편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도 그런 기분이 드는 소설이다.

소설가 은희경이 작품집 '장미의 이름은 장미'를 펴냈다. 단편집으로는 '중국어 톨렛' 이후 6년만에 나온 책이다. 네 편의 연작 소설은 모두 '뉴욕'이 배경이고, 출판사측은 '뉴욕-여행자 소설 4부작'이라 이름 붙였다.



낮선 외국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기는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롭다.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는 잡지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승아'가 친구 '민영'의 뉴욕집에 머무는 10일간의 이야기를 다룬다. 두 사람의 일상은 승아가 도착한지 하룻만에 인터넷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티켓을 알아볼 정도로 아슬아슬하다. 웬지 계속 어긋나기만 하는 두 사람의 상태는 결국 '관계'에 대해, 누군가를 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든다. 승아와 민영의 하루를 번갈아가며 보여주는데,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표제작 '장미의 이름은 장미'는 제29회 오영수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주인공은 이혼을 하고 홀로 뉴욕으로 떠난 마흔 여섯의 '나'와 그녀가 어학원에서 만난 세네갈 대학생 '마마두'다.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않는 마마두와 짝을 이뤄 조금씩 가까워진 '나'는 그와 따로 학교 밖에서도 만남을 갖지만 오해가 빚어낸 일로 서로의 '다름'을 확인한다.

'양과 시계가 없는 궁전'은 뒤늦게 예술대학 극작과에 진학해 극본 작업을 하는 '현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삼 년 전 처음 뉴욕을 방문한 그는 사촌언니를 따라 간 피크닉에서 중학생 때 유학 온 '로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이후 매년 뉴욕을 방문한 현주는 이번 네 번째 방문 때도 로언을 만나고, 로언의 친구들을 소재로 글을 써 보려고 마음먹었지만 로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둘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를 맞는다.

'아가씨 유정도 하지'의 주인공 '나' 역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문학 행사 참여 차 뉴욕에 온 그는 평소와 다른 일과에 그다지 관여하지도, 또 의존하지도 않는 팔십대 어머니와 동행중이다. 어머니와 자신이 지나온 여러 시절을 돌이켜 보던 그는 어머니가 왜 이곳에 온 것일까 궁금해하고, 그녀의 케리어에서 '최유정'이라는 어머니 이름 앞으로 온 오래된 항공우편을 발견하고, 그녀의 마음을 헤아린다. <문학동네>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